

“Spring, again”

Kim Jeongmin / Director, Gahoedong 60

Chung, Sookyung has finally broke the two decade long hiatus when she came back with two exclusive exhibitions in spring and fall 2014, with another one prepared for spring 2015. Even though occasional contribution to group exhibition reminded us of her existence, breaking such a long hiatus is not an easy task in a real life. It is only possible through her passion for painting, and due to the fact that painting has been a remedy to heal her soul.

Spring as a season is a process of awakening, out of deep slumber and it is a sign of life after a lasting winter. In such framework spring has significant resemblance to the condition of the artists who is emerging out of long slumber as she sits in front of the canvas. Chung found inspiration from a spring sun soaked maidenhair tree she stumbled upon, and sat in front of canvas with images of spring leaves and shimmering glow of life. Canvas was then filled with harmony of brush strokes and random effects from dripping technique.

When I collaborated with Chung in “Space of healing” exhibition in 2014, Chung’s works carried seamless harmony of colours and shapes. Even though the tragic incident of Sewol ferry had a significant blow as she was just recovering from her long hiatus, she did not drop her brush. Instead, through the bright and smooth colours, dripped paints and embodiments of round shapes, she was sending a message of healing, message of hope to not only herself but to the rest of us. In her subsequent fall exhibition titled “Sek, Gye (Colour(色), Season(季))”, her colours have become richer, expressing the season of harvests which led us to look forward to more works from her.

And in 2015, in this return of magical spring season, Chung did not let us down and presented us with new collection. Under the title of “Cheong, Eum(Clarify(淸), Sound(音))”, her feast of colours have met the world of sounds. Her new collection presents surprisingly

vivid density, as if listening to a clear and crisp tunes coming out of Orgol(music box). Before this exhibition her works left somewhat wanted due to the limitation of expressing water droplets with dripping technique. This often exposed empty canvas even with multiple layers, even though the empty spots have opened up breathing spaces which in itself weren't undermining her work. However her new collection doesn't contain such looseness. Has she found a secret way around such limitation or her passion just intensified into another level? One thing sure is that when she took a leave out of her busy schedule to visit Plum blossom Festival held in Gwangyang to bring plum blossoms and bamboos into her canvas, she has also brought another bonus; a liveliness of spring.

Her previous works already showed vivid images through expression of life through feast of cherry blossoms and light green leaves. Flowers and leaves were spread and scattered across canvas to create dreamy atmosphere. In contrast wooden branches provided shapes, divided spaces to provide vital supports to glamorous flowers, which isn't compulsory but accentuates the overall image. However her new collections reveal plum blossom branches deeper in colour and shapes more profound. Colours of flowers and leaves have become even more vivid and deepened. Not hardened but solid with core, enough to sense the continuation of life and ooze confidence that the core of life will be reached if we continue to follow the path. All of these were drawn without sacrificing the splendour and sensation making one to wonder whether Chung has found the vital core within her? Her brushstroke strike curiosity for a view to gaze deeper into her canvas, as if wanting to reveal a hidden story and visuals behind the scene.

Even though densities have increased and looseness has disappeared, in fact touches of blank spaces and dimensional effects have become deeper. Rather the emptiness that was attached with spaces have transformed into naturalness. Looking at her first bamboo collection, it starts with knife placed paint on the canvas expressing thickness then as the work develops the shoots of bamboos diversifies and intensifies enabling the breath-taking scenographic perspectives. Sturdy bamboo shoots are expressed without the leaves and dripped droplets resonates the crisp and clear sound, leading the viewers into the canvas and in the middle of bamboo forest. Harmony is what Chung values the most and this has been broadened to encompass the shape of colour and sounds. Deepened density of liveliness has now taken to another level, piercing through to the core of heart, while her previous works were in the form of leaving a subtle but lasting finish.

Artist must have toiled during the past two years to express this level of change in her works. This is where I revisit what exhibition means for artists. As stage is required for actors, exhibition is a process that needs to exist for any artist. Of course professional artists could regard exhibitions as annual story writing rituals of his/her own journey. This is because exhibition itself can't be more important than the journey of artistry itself. However for artists such as Chung who has other career commitments to earn her living, exhibition provides evidence that she is still living and breathing. Through their exhibition they are able to dream about the creation and find reasons to carry on. The journey might be slow but when the audience can see the steps of artist, slow but seamless journey the artist is taking, that's when audience are impressed and engaged with the artist's works. Spring, again.

As I just witness the heart resonating collections that exude vivid life and beauty of spring season, I sincerely hope that Chung will not stop her journey and persevere.

다시, 봄

2014 년, 봄—가을로 두 번의 개인전을 가지며 오랜 공백을 깨고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정수경 작가는 2015 년 봄에도 개인전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간간히 단체전 등을 통해 작업을 선보였지만, 20 년에 가까운 공백을 깨고 다시 개인전을 갖는 것은 각박한 현실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작업에 대한 열정을 새삼스레 내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림에 대한 애착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작업의 과정이 자신에게 있어 치유의 시간이 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봄이라는 계절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자연에게 있어 소생의 시간이요, 지나간 겨울 뒤에 오는 생명의 신호이다. 이런 점에 있어 봄은, 긴 휴지기를 거쳐 다시 작업에 몰두하는 작가의 상태와 깊이 결부되어 있는 특별한 계절이다. 어느 봄날 문득 그의 시선에 들어 온 햇살을 가득 품은 은행나무 한그루를 바라보며 여린 잎들과 밝은 빛을 내뿜는 생명의 신호를 핑계 삼아 현재의 작업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작가는, 드리핑으로 만들어내는 우연적인 효과와 붓질의 조화를 빈 공간에 풀어내었다. 필자가 함께 준비했던 2014 년 <치유의 공간> 전시에서 정수경의 작업은 색채와 형태의 조화를 부드럽게 품고 있었다. 긴 휴식에서 깨어나 열정적으로 작업에 몰두하던 지난 봄, 세월호는 그에게 또 다른 상흔을 남기고 말았지만, 이조차 그의 붓을 다시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화사하고 부드러운 색채와 드리핑된 물감이라는 둥근 물질의 확산된 흔적은 작가 자신은 물론이요 타자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는 손길을 내밀며 치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색色; 계季>라는 주제로 가진 가을의 전시에서는, 색채의 화려함은 물론 결실의 풍성함마저 드러내 보여주며 새로운 작업으로 이어질 신호를 간직하고 있었기에 활발한 전시로 이어지는 작가의 다음 작업을 기대하게 해 주었다.

2015 년, 또다시 봄이라는 마법의 시간, 정수경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새로운 작업을 내어 놓는다. <청淸; 음淸>. 색채의 향연이 이제는 소리의 세계를 만났다. 이번 신작에서 보여주는 그의 작업은 놀랄 만큼 탄탄한 밀도를 통해 마치 오르골 건반의 음들이 울려 퍼지는 듯 맑은 소리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작가의 드리핑 작업은 작은 방울의 물감들을 떨어뜨려 표현하는 그 방식의 한계로 인해 캔버스라는 공간을 채우는데 있어 약간의 아쉬움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수많은 레이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비어있는 캔버스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한 여백이 공간의 폭을 넓혀주고 있어 거슬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신작에서는 이전의 느슨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작업 방법에 있어 비밀의 통로를 찾아낸 것일까, 아니면 다시 불붙은 그의 열정에 밀도가 생긴 것일까. 매화와 대나무를 화폭에 담아 보겠다며 빠듯한 일정으로 무리해서까지 광양 매화축제에 다녀왔다는 작가는 그곳에서 봄의 생명을 담아온 것이 틀림없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연녹색 이파리가 확산되었던 지난 작품들에서, 생명력만으로도 화면은 이미 풍성했다. 꽃과 잎이 화면 전체에 흩날리듯 퍼져 몽환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나뭇가지들은 화사한 꽃들에게 길을 양보하는 유희공간으로 그곳에 자리하며 화면을 분할하고 조형성을 갖추어주는 장식품—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악센트를 부여하는—처럼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매화 작업에서 나뭇가지들은 색이 진해지고 뚜렷이 형태를 갖추며 존재의 이유를 드러낸다. 꽃과 잎들도 색상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깊이감이 생겼다. 굳어있지는 않지만 알맹이가 잡힌다. 이를 통해 생명이 이어지고 중심을 잡아가고 있음이 감지되어 따라 내려가면 생명의 근원에 닿으리라는 어떤 자신감이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화사함과 풍성함을 흠뜨리지 않는다. 작가의 마음에도 한결 중심이 잡히고 있는 것일까? 시각적 흥미와 더불어 스토리가 감추어진 화면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밀도가 높아지고 느슨함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여백은 그대로 존재하고 공간감은 더욱 깊어졌다. 도리어 여백이 보여주던 공허함이 스스로 그러해야 할 곳에 자연스럽게 자리한다는

느낌이다. 이번에 처음 시도한 대나무 시리즈를 보면, 초반 작업에는 나이프로 물감을 얹어놓아 물질의 두께감이 느껴지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대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분명해지며 원근의 조화를 기막히게 만들어내고 있다. 분명 대나무 잎은 없지만 단단한 대의 형태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드리핑된 방울들은 청명한 소리로 울려 퍼져 보는 이가 대숲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인 '조화'의 폭이 넓어져 색과 형태, 소리까지 배려하고 있음이다. 한층 깊어진 생명력의 밀도는 살포시 여운을 남기던 상태를 넘어 가슴의 중앙을 관통한다. 봄이 농익고 있음이다. 아름답다.

2년 여 기간 동안 이정도의 변화를 표면으로 드러내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만들어 내었을 것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작가에게 있어 전시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극을 하는 이들에게 무대가 필수적인 것처럼 작가에게 있어 전시라는 기회는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다. 물론 전업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전시란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흔적을 내보이는 연례행사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전시가 갖는 의미는 물론 중요하지만 삶의 전체를 차지하는 작업이라는 과정이 훨씬 무게감 있게 다가올 테니 말이다. 하지만 정수경 작가처럼 자신의 생업과 더불어 틈틈이 작업을 해 나가는 겸업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자신이 숨을 쉬고 살아 있음을 증명하게 해 주는 존재의 발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전시라는 무대가 있기에 꽃피울 수 있는 작업의 꿈을 보듬으며 힘겨운 과정을 헤치고 또 발걸음을 떼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것이 비록 더디더라도 억지스럽지 않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 질 때, 관객은 감동하게 되고 또 작가와 함께하고 싶어 질 터이다.

다시, 봄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농밀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작업을 통해 가슴을 울리는 전시로 우리에게
한걸음 더 성큼 다가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수경 작가가 이러한 행보를 서두르지는 않더라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주길 바라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김정민 (가회동 60 디렉터)